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호남·제주고고학의 성과' 2015~2016년 400건 이상 발굴성과 한 자리 모아



화전 2014~2016년 광주 북동동 유적 출토



검파형동기: 2015년 군산 선제리 유적 출토



원뿔모양토기 2016년 제주 외도1동 유적 출토



도장무늬기와 2014~2015년 군산 함미산성 출토

땅 속을 발굴하면 수백만 년 전에 묻힌 석기부터 토기, 청동기, 철기 등의 유물과 집자리, 무덤, 산성 등의 유구까지 다양한 과거의 잔해가 발견된다. 발굴은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고하고 탐구한다. 때문에 물질 자체보다는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2년 동안 호남·제주지역에서는 4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2015~2016년 호남·제주 지역의 발굴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7월 9일까지 기획전 특별전 '흙 속에서 발견한 역사의 조각들-2015~2016 호남·제주고고학의 성과'를 개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나뉘며, 다양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된다.

1부는 '선사시대- 기록 이전의 과거'라는 주제로 구석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의 발굴성과를 살펴본다. 검파형동기, 거울모양동기, 화전 등 최근 조사된 초기철기시대의 유물은 국내에서 매우 드문 것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은다.

또 호남지역에서 조사된 사례가 적은 청동기시대 전기 집자리의 발굴 성과를 한 자리에 모았고, 제주 고산리 유적의 대표 유물도 만날 수 있다.

2부 '역사시대- 만들고 사용하다'에서는 광주 하남 3지구 유적부터 나주 읍성까지 마을에서 읍성으로 취락의 공간이 변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무덤·산성·수리시설 등에서 확인되는 고대의 토목기술을 알아본다.

또한 고장 용계리, 진안 도토리, 부안 유전리 등 청자기마 조사 성과를 통해 호남지역 청자의 등장과 발

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부 '역사시대- 내세와 안녕을 기원하다'에서는 무덤과 사찰 조사 성과를 다룬다. 화순 권덕리 회덕고분,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군 등의 조사 성과를 통해 삼국시대 무덤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외래문화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알아본다.

또 남원 실상사, 보성 개흥사지, 강진 용혈암지 등 사찰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 호남지역 불교문화의 발전 및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출품된 유물은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 전시가 연구자들에게는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 기자

고려시대 보물 '나주 서성문 안 석등' 내일 나주서 등불 밝힌다

국립나주박물관은 보물 제364호 나주 서성문 안 석등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옮겨와 11일부터 전시한다. 1929년 고향을 떠난 뒤 88년만의 귀향인 셈이다. 석등은 팔각 기둥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고려 선종 10년인 1093년에 만든 것이다. 나주읍성의 서문 근처 몇 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일제강점기인 1929년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당시 불발기집과 짝대기 장식 등 일부 부재가 사라져 버렸는데, 서울로 옮긴 뒤에 새로 만들어 맞추었다. 원래 흥흥사라는 절에 있었던 석등이었다고 전하나, 현재 흥흥사의 위치를 알 수 없다.

이 석등은 불을 밝히는 불발기집을 중심으로 아래에는 3단을 이루는 받침돌을 두고 위로는 아름다운 형태의 지붕돌을 얹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짜임새가 있고 조각도 우수하다. 석등 제막식과 점등행사는 오는 11일



보물 제364호 나주 서성문 안 석등

오후 3시 국립나주박물관 중앙홀에서 열리며, 강연회와 축하공연이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이보람 기자

오승윤·최쌍중 특별전

23일까지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광주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세계·조각 장식박물관과 진옥선이 주관하고, 예술의 거리 변영화가 후원하는 '오승윤·최쌍중 특별전'이 10일부터 23일까지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고오승윤 화백의 수련, 해녀, 꽃 등 20여점과 최쌍중 화백의 과수원, 해경(海鏡), 누드 등 15점이 전시된다.

오승윤 화백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1974년부터 전남대학교에 봉직하면서 예술대학을 창설했다. 그의 조형 언어는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풍수'이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청·적·황·백·흑의 5가지 색이 기본이 되는 '오방적색'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화려하게 표현했다.

최쌍중 화백은 196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현장감



오승윤 작 '수련'

있는 그림이 생명이 길다'며 생동감 넘치는 그림을 추구한다. 그는 자연의 다른 조건과 무수히 변하는 상황들을 직접 만나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겪으며 사물을, 인생을 캔버스에 따뜻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문의 062-222-0072. /이연수 기자

작지만 꿈을 담을 수 있는 집



'집+공간 in'

정지윤 '사유의 공간 집+공간' 전 24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지윤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 주제는 '사유의 공간 집+공간'이다. 작품 속 '집'은 '나를 보여주는 공간'이자 '나를 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이다. 거주 의미로서 삶의 터전이고,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거울이기 때문.

작가는 '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을 찾는 과정을 고스란히 작품에 담아냈다. 또 내면의 감정을 조형이라는 언어를 통해 표현하려 했고, 그 속에서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

작가는 서문을 통해 "이번 작업을 통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유의 공간이라는 집의 의미는 어느덧 나와 우리라는 단어로 물들었고, 나아가 보다 성숙하고 멋진

삶이 펼쳐질 거라는 희망도 보게 됐다"고 말했다.

'작지만 꿈을 담을 수 있는 집', 작가가 전담하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도 있다.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를 졸업하고, 조선대 일반대학원 산업공예학과 도자공예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빛고을공예창작촌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며 조선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와 전남도립대 도예전문대학 등에 출강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673-5858 (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유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중흥삼거리 부근



010-8628-0482